



외식업계
제철 신메뉴로
특별한 연말을
나



Life

코스맥스, 콜마
건강기능식품
경쟁 점화
L2



자립준비청년 돕고, 음식 나누고... '더 달콤한 내일' 향해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돌코리아

돌(Dole)코리아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H ealth)하고 행복(Happiness)하며 조화로운 (Harmony) 내일을 만들겠다는 비전 '스위트 투모로우(Sweet Tomorrow)'를 중심으로 E 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체 사회공헌 캠페인부터 건강, 교육과 관련한 지역 사회 상생 활동, 지속 가능한 목표 수립까지 다 방면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배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 세상

돌코리아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위치한 돌(Dole)의 비영리 재단인 카실락재단 (Kasilak Foundation)과 연계해 'Adopt-a-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바나나 농장 주변의 초등학교 중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닌 학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하여 수업에 필요한 교재, 과학 실습 도구, 교육용 TV 등을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개수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깨끗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7개의 초등학교, 3306명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꿈나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15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Sunshine For All' 장학 기금을 매년 전달해왔다. 특히 아동양육시설(보육원)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서기에 나서는 청소년(자립준비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누적 기부금은 약 4억4000만 원에 달하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학비, 생활비, 역량개발비 등 자립을 위한 장학 기금으로 사용됐다. 현재까지 총 195명의 학생들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8명의 자립준비청년과 4명의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도움이 손길을 건넸다.

◆지역사회에 온기 전파하는 돌코리아 나눔 활동

돌코리아는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평택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오고 있다. 청과 기부부터 장



1 지난 6월 11일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 내 바보의나눔 사무국에서 열린 'Sunshine For All'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오른쪽)가 돌코리아 류미선 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2·3 돌(Dole)코리아는 돌 키즈 쿠키 클래스를 매달 2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 및 요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4 지난 6월 1일 진행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제14회 장애이해퀴즈쇼 : 골든벨을 울려라' 현장. /돌코리아

건강·행복·조화 중심 ESG 경영 박차

필리핀 바나나농장 주변 교육환경 개선 꿈나무 지원 '바보의 나눔' 장학금 전달 평택지역 아동보호기관에 지원금 후원

연간 약 10억 규모 푸드뱅크 후원 지속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위해 노력

에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체험 활동 후원까지 다방면으로 온정을 전하는 중이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2007년부터 연간 약 3000만 원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제14회 장애이해퀴즈쇼 :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서 돌코리아 임직원들이 자원 봉사자로 직접 나서 참가자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동참했다.

돌코리아는 18년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32개의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 5억6000만 원에 달하는 기부

금을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으며 장애인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돌코리아는 영양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사 제품을 기부하는 형태로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 중이다. 6세 이하의 요보호 아동에 보호 및 양육하는 기관인 '아곱의 집'에 매달 자사 바나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체 발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소꿉퍼포먼스' 및 '생태문화여가특별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한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장애 영유아 복지시설 '아이들의 집'과도 2008년부터 연을 맺어 기부를 지속 중이다. 아동들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감각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가 높은 자사 제품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전국 각 지역의 푸드뱅크와 협력해 소외 이웃에게 자사 제품

을 꾸준히 기부 중이다. 연간 약 10억원의 규모로 푸드뱅크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약속

돌코리아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지역 사회 즉, 모든 이해관계자를 최우선으로 공유 가치를 만들겠다는 '돌 프로모시(Dole promise)'를 기반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소비자에게 건강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에 정제 설탕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5년까지 과일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과일 손실,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포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순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부, 지역사회,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기회와 생활 임금, 안전과 영양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힘을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강, 내일 노벨문학상 메달 건다... 스웨덴 국왕 수여 /사진 뉴시스
▲서울 발달장애인·전문연주자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 창단

▲독일 '명문' 뮌헨,故 베켄바워 등번호 5번 영구 결번
▲한국 '장 담그기' 등 유네스코 무형유산 66건 신규 등재



▲소토, MLB 역대 FA 최고액...15년 1조1000억원 메츠와 계약
▲'오승환은 묶는다'...보호선수 명단 구성에 고심하는 삼성 /사진 뉴시스